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윤진¹⁾ 이정원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과제 수행을 위해 실시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기술통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영유아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지역규모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며 이와 함께 가구소득, 모학력,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와 동세대와 비교한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의 상대적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 학력이 높을수록, 모가 이용한 문화시설 개수가 많을수록, 동세대와 비교할 때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자녀의 지난 1년간 이용한 문화시설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그렇지 않은 영유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구, 농어촌지역 등 문화경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화자본론, 지속이론,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 경험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도 일반과제로 수행한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의 원자료를 분석, 활용함.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취학전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문화예술 경험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탐색을 통해 그러한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영유아기 초기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의 보육·교육 경험의 장기적 영향에 주목하였으나(Barnett, 1995; Camilli, Vargas, Ryan, and Barnett, 2010; Campbell and Ramey, 1994; Magnuson, Ruhm, and Waldfogel, 2007; Puma, Bell, Cook, and Heid, 2010), 본 연구에서는 생애초기의 문화예술 경험도 보육·교육 경험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들이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유·초·중·고의 교육 목표는 ‘창의인재’ 육성으로 설정되어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가정배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교육격차 해소와 비등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애 초기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은 생애 초기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를 줄이려는 관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출범한 현정부가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하고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한 점도(문화체육관광부, 2013) 영유아기의 문화경험에 주목해야 하는 한 이유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정책은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을 기초로 한다. 지속이론에 따르면 문화(여가)활동은 학습된 행동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경험과 변화로서 생애초기에 학습한 문화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문화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소영·신아름·신효원, 2011: 6). 이에 정부의 문화복지정책도 생애초기단계의 문화경험이 평생의 문화생활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영유아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실제로 아동·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생애 초기에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영유아들조차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3)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go.kr/nation.kri.org>). 2009 개정 시기의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인간상임.

있으므로(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이시기에 보다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를 통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경험을 접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성인의 문화예술 경험은 가구경제수준이나 본인의 학력, 지역특성(문화시설에의 접근성), 그리고 부모의 학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석, 2008; 김선형, 2009; 백원근, 이용훈, 김수연, 박호상, 윤치호, 2012). 이는 문화예술 경험이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문화예술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강인애, 2012; 박상혜, 2012; 박신의, 백령, 황지영, 2012; 백원근 외, 2012, 정혜연, 2012) 이들 선행연구들도 문화시설 이용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복지나 영유아 유관 학계에서 주된 관심 주제는 아니었던 ‘영유아의 문화복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생애 초기 경험이 이후 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지속이론과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에 기반하여, 영유아기의 문화경험의 차이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가족배경에 의한 문화경험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지를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영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⁴⁾ 보육·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가족배경 등에 따른 영유아의 문화경험의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육·교육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문화경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들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생애 전반에 걸친 인간 발달과 문화예술 생활 경험과 나아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유아기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2. 영유아의 거주 지역 및 가구특성, 문화자본의 특성, 기관이용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행태에 차이가 나는가?
3.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2013년 기준 취학전 영유아 인구 3,252,763명 대비 65.7%의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교육부(2013). 교육통계연보.

- 3-1) 가족배경이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3-3)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스스로 문화적 취향을 지니거나 문화예술 관람의 종류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제한된 영유아의 경우, 무엇보다 영유아가 속한 가정 배경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의 가정 배경에는 부모의 문화에 대한 식견과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영유아가 속한 가정 배경 중에서도 영유아의 초기 문화 경험은 부모의 문화경험, 부모의 문화경험에 대한 인식 등 ‘부모 변인’ 의해 주요하게 구속된다는 점에서 문화를 세대간 상속될 수 있는 자본으로 규정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유아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등 전생애에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노인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출발하였으나, “인간의 과거 경험, 선택, 행동들이 현재 및 미래의 선택과 행동의 기초를 형성한다”(김태주, 2002)는 ‘지속이론’을 고찰하였다.

가. 문화자본론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가 정립한 ‘문화자본론’에서 ‘문화자본’은 계급 형성과 계급재생산을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과 계급재생산에 대한 다각적 논의는 ‘문화자본의 형성’, ‘자본으로서의 문화’, ‘계급재생산 기제로서의 문화자본’의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김경석, 2008: 7). 부르디외는 그의 저서「구별짓기」에서 “문화는 정신적 산물만이 아니라 자본의 형태를 띠는데 이 때 자본은 화폐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의 취향을 드러내는 심미적 가치와 학력과 혈통에서 축적된 사회적 자산을 포함한다”(이동연, 2010: 32)고 문화를 자본으로 통찰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문화가 세대에 거쳐 대물림되어 계급을 재생

산 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의 속성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문화자본은 습득경로에 따라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으로 구분되어 진다. 전자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습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향과 아비투스”를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는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진 자질”이다(Bourdieu, 1995: 43; 143; 김정석, 2008: 7에서 재인용). 이처럼 문화자본은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부르디외는 기본적으로 문화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본을 보다 손쉽게 교육적 자질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고, 어린 시절의 초기 사회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장미혜, 2002:100). 그러나 상속자본도 공식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획득자본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았다.⁵⁾ 즉, 상속자본은 강력한 문화자본을 부여받은 가정 내에서 저절로 습득되나, 반대로 교육적 성취의 형태로 객관화된 문화자본(획득자본)은 개인에게 체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본의 보유자가 문화적 자본이 뛰어난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김선형, 2009: 8).

나. 지속이론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인의 사회화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노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적 노화이론’의 하나이다(송미순, 하양숙, 1997; 김태주, 2002: 2에서 재인용). 지속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대치시키려 하며, 노화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자신의 과거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시켜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심리적 연속성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과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본다(김태주, 2002: 3). Lueckenote는 노년기가 인생의 다른 부분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삶과 연결된 인생주기 전체의 통합시기임을 들어 지속이론을 발달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Lueckenote, 1996; 김태주, 2002: 3에서 재인용).

김태주(2002)는 ‘지속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속이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지속성(continuity)’을 ‘내적 지속성(internal continuity)’과 ‘외적 지속성(external continuit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내적 지속성’이란 “생각과 기질, 정서, 개인의 선호도, 기술 등과 같은 정신적 구조의 연속성으로, 개인이 새로운 자아를 유지시키고 지지하며 정당

5) 문화적 재생산론에 반대하는 일부연구에서는 자신은 별다른 문화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하층계급 출신의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교육적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문화자본과 자녀의 교육적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장미혜, 2002: 113).

화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이며 ‘외적 지속성’은 “사회적 행동과 환경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김태주, 2002: 3).

“인간의 과거 경험, 선택, 행동들이 현재 및 미래의 선택과 행동의 기초를 형성한다”(김태주, 2002: 4)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반드시 중노년기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 경험 또는 문화 활동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인간의 문화(여가)활동 또한 학습된 행동으로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계속적인 경험과 변화이므로 생애초기에 학습한 문화 활동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 활동의 내용과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소영 외, 2011: 6)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문화 경험 격차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앞서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문화예술 경험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는 즉 ‘문화예술 경험을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문화 경험의 양과 질이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경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향후 문화경험을 예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영유아의 특성 상 문화 경험은 부모 등 성인과 동반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화시설 이용 시기,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종류와 양 등 영유아 문화경험의 전반이 성인,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매우 의존적일 수 있다. 즉, 부모가 어느 정도의 문화적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는지는 자녀의 문화예술 경험의 첫 출발선과 경험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문화자본의 전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차별지향 문화’⁶⁾ 경험에는 부모의 차별화지향 문화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석, 2008: 59). 김선형(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자본 중 ‘상속자본’의 대리

6)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을 ‘차별지향 문화’와 ‘의사소통지향 문화’로 구분하였는데, 연극 관람, 클래식음악회 관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뮤지컬 관람, 미술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등을 ‘차별지향 문화’, ‘영화관람, 만화/애니메이션 감상’ 등을 ‘의사소통지향 문화’로 명명함.

변수로 포함된 아버지의 학력과 ‘획득자본’의 대리변수로 포함된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모두 성인의 문화행사관람 장르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대학학력 수준은 자녀인 성인의 문화행사 관람 장르 수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행사 관람 장르 수가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김선형, 2009: 41).

이와 함께 ‘가구소득’도 문화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26.9%에 불과하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관람률이 83.5%(문화체육관광부, 2012: 41)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 백원근 외(2012)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도서관의 이용이 연 10.3회라면, 월 700만원 이상 가구는 19.5회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횟수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화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청소년의 ‘차별지향문화’ 경험은 청소년의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석, 2008: 58). 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화, 전통공연, 연극, 클래식, 뮤지컬, 콘서트, 미술전 등 문화행사 관람 경험이 있는 경우 각 장르별로 관람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형, 2009: 37). ‘문화적 박탈감’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수준이 문화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문화적 박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우석, 양효석, 2013: 185).

한편, 선행연구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또한 문화 경험, 즉 문화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김선형(2009: 34)의 연구에서는 문화행사 관람자 집단은 대도시 및 대도시 주변 거주자의 비율이 높고 반대로 비관람자 집단은 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근 외 연구(2012)에서도 거주 지역에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구축 정도에 따라 문화 이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에서 10분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에 어린이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도서관의 근접성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이 2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였다(백원근 외, 2012).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을 기준으로 한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생활 향유와의 관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문화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이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의 방문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역시 문화시설 이용에 ‘지리적 접근성’ 요인의 중요성이 나타났다(문화관광연구원, 2012: 4). 문화시설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과의 비교에서도 지역

주민의 연간 방문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연구원, 2012: 10). 이는 문화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문화시설 이용에 중요한 요인임을 잘 보여준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이 동반하여 문화시설에 이동하여야 하나, 성인에 비해 장시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역 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유무가 성인에 비해 문화 경험의 격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지역’ 변인 역시, 앞서 살펴본 ‘영유아기’와 ‘가구소득’ 변인처럼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대상 기관의 이용도 영유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아,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 가구가 이용할만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윤진, 이정원, 구자연(2013: 118)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문화시설 정보가 가정에서 문화시설 이용 선택 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8%에 달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연령’, ‘가구소득’, ‘학력’, ‘지리적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요컨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화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시설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부모의 문화예술 향유의 경험적 특성이 자녀의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의 기관 이용은 부모변인으로 인한 문화향유의 대물림 현상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화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문화생활에 있어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자는 이후 문화예술 관람율이 약 90%에 달했으나, 비경험자는 관람률이 60%로 낮았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도 유아동기의 경험자는 58.7%가 이용했지만, 비경험자는 36.0%에 그치는(문화체육관광부, 2012) 등 어렸을 때 문화예술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향유를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본 논문은 2013년 현재 만 1~5세의 취학전 영유아를 둔 가구 942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수행 연구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을 위해 실시되었던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2013년 5월 기준 주민등록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전국단위로 1,000사례의 영유아 가구를 표집하였다. 단, 영유아 가구 중 문화시설 경험이 거의 없을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고, 문화시설 이용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영아(만 1~2세)가구와 유아(만 3~5세)가구를 약 3:7의 비율로 할당하여 유아의 비율을 높였다. 또한 총 1,000가구 중 최소 200사례는 저소득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각 시도별 어린이집/유치원이 단지 내에 있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례를 할당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1,000사례의 영유아 가구 자료 중 본 논문은 응답자가 ‘어머니’인 사례 942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조사에서 영유아의 부모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응답자였던 사례를 제외한 자료만을 본 논문에서 활용하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 독립변수로 투입될 ‘응답자 연령’이나 ‘응답자 학력’ 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등이 어머니,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고 ‘응답자 특성’으로만 사용할 경우 응답 경향에 있어 남녀 성별에 따른 체계적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응답대상가구의 특성과 문화인프라 이용 경험 등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0.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빈도와 평균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독립변수의 집단구성별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여 집단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하였고 어떠한 집단간 차이가 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문화인프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구소득, 부모 학력, 지역특성과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관련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시 주로 어머니가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시간을 제약할 수 있는 ‘모취업여부’를 변수로 투입해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대상 아동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자녀수’도 변수로 투입하였다. 설문지의 응답항목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한 변수는 <표 1>에서 제시한 설명의 좀 더 상세한 정의와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구분			측정	비고
기타 요인	지역 환경	지역규모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군)지역=3	
	가족 특성	모취업여부	취업=1, 미취업=0	
독립 변수	문화 자본 요인	총자녀수	1명 단위로 측정	
		대상자녀연령	1세 단위로 측정	
		가구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만원 미만=4, 400~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	
		모학력	고졸이하=1, 전문대졸=2, 4년제 대졸=3, 대학원 이상=4	
독립 변수	문화 자본 특성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응답자인 모가 이용 경험 있는 문화시설 개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4종의 문화시설 중 이용경험이 있는 개수로 측정, 최소 0~최대 4점까지 측정될 수 있음	
		동세대와 비교한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매우 부족함=1, 부족한 편=2, 충분함=3	
획득 자본 특성	대상영유아의 기관이용여부	기관 이용=1, 기관 미이용 =0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의미함	

(표 1 계속)

종속 변수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대상영유아가 지난 1년간 이용 경험있는 문화시설 개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예회관, 놀이터, 극장 등 9종의 문화시설 중 이용경험이 있는 개수로 측정, 최소 0~최대 9점까지 측정될 수 있음	*문화시설: 문화예술진 흥법상의 문화시설+ 놀이터
----------	--	---	---

1) 종속변수: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이는 조사 대상 영유아가 지난 1년간 가정에서⁷⁾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에서는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의 종류 13가지를 제시하여 지난 1년간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러한 종류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⁸⁾.

문화시설의 종류는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윤진 외, 2013: 23). 설문지에는 놀이공원, 수족관·동식물원, 사설키즈카페 등을 포함한 13종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영유아 이용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박물관(어린이박물관 포함), 미술관(어린이미술관 포함), 문예회관(예술의 전당 등), 공연장(극장)에 ‘놀이터’를 추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에서는 영유아 가구에서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예회관, 극장(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장 등), 놀이터 등 각 종류의 문화시설을 지난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문화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1,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하여 영유아의 지난 1년간 9종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총합을 구하여 이를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이러한 생성변수로 측정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이론적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9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7)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관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방문한 문화시설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함.

8) 해당 질문은 ‘다음은 귀댁에서 지난 1년간 영유아 자녀와 함께 이용한 문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로 시작하며, 13종의 문화시설을 제시하고 각 종류의 문화시설 이용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고 있음.

2) 독립변수: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이는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은 대부분 부모 동행 하에 이루어진다는 측면과 문화자본론의 관점에 근거해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아동의 문화시설 이용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입된 변수로, 조사 대상 영유아의 부모가 지금까지 이용한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에서는 부모 세대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문화시설 5종을 제시하여 부모가 출생 후 지금까지 이러한 종류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영유아 대상 문화시설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각 종류의 문화시설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하여 부모가 이용한 적이 있는 문화시설 개수의 총합을 구하여 이를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5종의 문화시설 중 영유아용 문화시설 이용 정도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놀이공원’은 제외한 4종의 문화시설 중 이용한 경험 있는 개수를 측정하였다. 이에 이러한 생성변수로 측정된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이론적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3) 독립변수: 동세대와 비교한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본 항목 또한 분석에 활용한 원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에서는 응답 범주가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의 4범주이나, 빈도 분석 결과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미미하였다(1.0%). 이에 ‘매우 충분하다’는 ‘충분한 편이다’에 포함하여 재코딩하여 세변수로 구성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과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가.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에 앞서 독립변수로 투입된 변수들의 특성을 ‘기타-지역 및 가구특성’, ‘문화자본-상속자본 관련 변수 특성’, ‘문화자본-획득자본 관련 변수 특성’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1) 기타: 지역 특성 및 가구 특성

먼저 분석대상 가구인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 942사례의 거주지역규모와 응답자인 어머니의 취업여부, 총 자녀수, 대상자녀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현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비등하였고, 군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12.1%).

취업중인 어머니의 비율은 26.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35.4%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67) 상당히 낮은 비율이나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자료의 수집대상인 영유아 가구 1,000사례 중 약 1/5의 사례는 저소득층이 의도적으로 표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⁹⁾.

응답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6명이며,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47.1%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3명 이상을 둔 경우는 6.2%에 불과하였다.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묻고 있는 ‘대상’ 자녀는 각 가구의 영유아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영유아였는데, 영아인 1,2세보다는 유아인 3~5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자료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시설 이용이 활발해 질 것을 예상하여 표집 시 유아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표 2〉 기타 요인_지역 및 가구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비율)	평균
거주지역규모	대도시	421(44.7)	
	중소도시	407(43.2)	
	읍면(군)지역	114(12.1)	
모 취업여부	취업	252(26.8)	
	미취업	690(73.2)	
총자녀수	1명	439(46.6)	1.6명
	2명	444(47.1)	
	3명	54(5.7)	
	4명	5(0.5)	
대상아동 연령	영아(1~2세)	283(30.0)	3.3세
	유아(3~5세)	659(70.0)	
수(계)		942(100.0)	

9)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조사 자료에서 약 200가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할당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도적 과대 표집이 시도되었다.

2) 문화자본 요인: 상속자본 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상속자본으로서 영유아의 문화자본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문화경험’을 선정하였다.

먼저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30.9%), 100만원 미만 5.7%, 100~200만원 미만 18.6%로 저소득 가구의 비중도 비교적 높다. 어머니의 학력은 2~3년제 대졸 이상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 상속자본 변수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비율)	최소	최대	평균
가구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54(5.7)			
	100~200만원 미만	175(18.6)			
	200~300만원 미만	261(27.7)			
	300~400만원 미만	291(30.9)			
	400~500만원 미만	100(10.6)			
	500만원 이상	61(6.5)			
모 학력	고졸이하	352(37.4)			
	2~3년제 대졸	272(28.9)			
	4년제 대졸	283(30.0)			
	대학원 이상	35(3.7)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용개수)	0	27(2.9)			
	1~2	191(20.2)			
	3	219(23.2)	0	4	3.2가지(개)
	4	505(53.6)			
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 정도	매우 부족(1)	122(13.0)			
	부족한 편(2)	596(63.3)			2.1점
	충분함(3)	224(23.8)			
		942(100.0)			

이와 함께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이용한 문화시설 개수)’, ‘동세대와 비교한 어머니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 정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4가지의 대표적 문화시설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개수를 살펴 본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에서는 53.6%가 4종의 문화시설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종을 이용한 경우도 23.2%로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평균 30대 초반인 어머니의 연령을 고려한

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극장 등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각각 한번씩이라도 이용해 보지 못한 경우가 약 50%에 가깝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결과일 수 있다.

한편 동세대와 비교 시 어머니 자신의 문화경험의 충분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신의 문화경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하였다.

3) 문화자본 요인: 획득자본 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세습되는 문화의 상속자본적 속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획득자본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대상 자녀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75.9%는 이러한 영유아 대상 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획득자본 변수의 특성: 영유아의 기관 이용

단위: 명(%)		
	구분	사례수(비율)
대상 자녀의 기관이용 여부	미이용	227(24.1)
	이용	715(75.9)
		942(100.0)

나.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표 5〉에 따르면 취학전 영유아가 지난 1년간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는 평균 2.3가지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어떠한 종류의 문화시설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29사례(3.1%)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의 문화시설 종류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집근처) 놀이터도 포함되었음을 고려할 때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사례수라 하겠다.

〈표 5〉 1~5세 영유아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가지(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이용개수)	사례수(비율)	최소	최대	평균(개수)
0	29(3.1)			
1	358(38.0)			
2	217(23.0)	0	9	2.3
3	156(16.6)			
4	87(9.2)			
5가지 이상	95(10.1)			
	942(100.0)			

한가지 종류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38.0%에 해당하였으나, 가장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는 최대 9가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문화시설 경험이 없는 경우부터 9종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우까지 영유아들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독립변수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차이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수별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의 범주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범주의 비율이 다른 범주에 비해 너무 낮은 범주는 몇 개의 범주를 합쳐 집단을 재구성하였다. 즉, 총자녀수,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모 학력,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은 평균 비교 대상 집단 범주가 간략화되었다.

〈표 6〉 제변수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단위: 가지(개), 명

변수	범주(집단)	평균	N	F
지역규모	대도시	2.5 ^a	421	9.281***
	중소도시	2.2 ^{ab}	407	
	읍면지역	1.9 ^b	114	
모 취업여부	미취업	2.2	690	9.735**
	취업	2.6	252	
총자녀수	1명	2.0	439	24.434***
	2명 이상	2.5	503	
자녀연령	영아	1.5	283	103.613***
	유아	2.6	659	

(표 6 계속)

변수	범주(집단)	평균	N	F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7 ^a	229	33.515***
	200~300만원 미만	2.0 ^a	261	
	300~400만원 미만	2.6 ^b	291	
	400만원 이상	3.1 ^c	161	
모학력	고졸이하	1.9 ^a	352	30.675***
	2~3년제 대졸	2.2 ^a	272	
	4년제 대졸이상	2.8 ^b	318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이용개수)	2가지 이하	1.9 ^a	218	10.484***
	3가지	2.2 ^{ab}	219	
	4가지	2.5 ^b	505	
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 정도	매우 부족	1.9 ^a	122	10.526***
	부족한 편	2.2 ^a	596	
	충분함	2.7 ^b	224	
자녀의 기관이용 여부	미이용	1.4	227	105.776***
	이용	2.6	715	

주: a,b,c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범주(집단)별로 지난 1년간 영유아가 이용한 문화시설 개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먼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경우 평균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총자녀수는 1명인 경우보다 2명이상인 경우, 대상자녀가 영아인 경우보다 유아인 경우,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지난 1년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F 검증을 통해 집단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독립변수의 범주가 세 개 이상이어서 어떠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역규모’,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모학력’, ‘모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 정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해당 지역규모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Sché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는 특히 대도시 거주 아동과 읍면 지역 거주 아동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영유아는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1.7가지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200~300만원 미만 소득가구에서는 2.0가지, 300~4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2.6가지, 400만원 이상 소득가구에서는 3.1가지의 문화시설을 평균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차이에 대한 Schéffe 사후검증 결과,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와 300만원~400만원 미만 가구, 400만원 이상 가구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 아동은 평균 1.9가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으나, 2~3년제 대졸인 경우 평균 2.2가지,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2.8가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유아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별 차이에 대한 Schéffe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2~3년제 대졸 이하인 집단과 4년제 대졸 이상 집단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지난 1년간 영유아가 이용한 문화시설 이용 개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2가지 이하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영유아는 지난 1년간 평균 1.9가지, 어머니가 3가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2가지, 어머니가 4가지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5가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별 차이를 Schéffe 사후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2개 종류 이하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집단과 4개 종류의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 있는 집단 간에 지난 1년간 영유아의 이용 문화시설 개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 정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인식할 경우 영유아는 문화시설을 평균 1.9가지,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할 경우 평균 2.2가지, ‘충분하다’라고 인식할 경우 평균 2.7가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의 아동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Schéffe 사후검증한 결과에서는 ‘매우부족하다’, ‘부족한 편’으로 느끼는 집단과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집단간에 지난 1년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학전 영유아를 둔 942가구의 사례에서 대상 자녀(가구 내 영유아 중 연령이 가장 높은 아동)가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의 종류는 평균 2.3가지이며, 전혀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부터 최대 9종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취학전 영유아 내에서도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방법(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선정 방식으로 독립변수를 한꺼번에 투입시켜 분석하는 ‘입력(enter)’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투입하는 독립변수의 수(9개)가 사례수(942사례) 대비 많지 않으며, 단계 선택 방법에서는 제외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실제보다 과장된 분석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호정·허진, 2008: 387).

<표 7>에 따르면, 먼저 모형의 R^2 값은 .241로 본 연구를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취학전 영유아의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약 24.1%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분산분석의 결과 $F=32.929$ $p=.000$ 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에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직선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β	t	sig	공선성통계량	
						공차한계	VIF
지역규모	-.281	.070	-.117	-4.018	.000***	.956	1.046
모 취업여부	.056	.111	.015	.510	.610	.900	1.111
총자녀수	.041	.084	.016	.493	.622	.793	1.260
대상자녀연령	.265	.048	.223	5.550	.000***	.505	1.982
가구 월평균 소득	.213	.043	.172	4.976	.000***	.684	1.461
모 학력	.204	.060	.114	3.410	.001**	.733	1.363
모의 문화시설이용경험정도	.122	.046	.080	2.647	.008**	.889	1.125
동세대와 비교한 부모의 문화시설 이용경험정도	.180	.080	.066	2.242	.025*	.945	1.058
자녀의 기관이용여부	.499	.148	.131	3.360	.001**	.536	1.865
상수	-.470	.289		-1.627	.104		
R^2 (adj R^2)	.241(.234)						
F	32.929***($p=.000$)						

* $p<.05$, ** $p<.01$, *** $p<.001$

독립변수별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본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허용오차(공차한계)와 VIF(분산팽창비율)의 값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별로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 VIF 10 미만이므로 본 연구를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타요인 중에서는 지역규모와 대상아동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과 동세대와 비교한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등 상속자본의 속성을 지닌 문화자본 요인과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의 획득자본 속성의 문화자본 요인은 모두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지난 1년간 이용한 문화시설 종류의 가짓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배경 요인 중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총자녀수는 대상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된 계수인 B (베타) 값의 비교에서 ‘대상 자녀의 연령’이 대상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는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의 기관이용 여부, 지역 규모, 어머니의 학력 순으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방향에 따른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대도시=1, 중소도시=2, 읍면(군)지역=3으로 코딩된 결과이므로, 즉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대상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난 1년간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이용한 문화시설 가짓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동세대와 비교해 자신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대상 영유아가 이용한 문화시설 개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상 영유아의 연령 또한 높을수록 지난 1년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취학전 아동의 문화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여 취학전 아동의 문화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스스로 문화시설 이용이나 문화시설의 종류나 양을 선택할 수 없는 영유아의 특성에 주목하여, 특히 가족배경이나 부모특성에 의한 상속자본으로서의 문화경험과 가족과 부모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이 논문은 영유아기부터의 문화 경험이 생애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초기문화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자본의 세습 가능성을 규명하고 영유아기 문화경험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연령은 영유아의 문화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경험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영유아가 이용할만한 문화시설의 종류나 양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연령별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있어서 연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 자료에서는 이러한 영유아의 연령별 이용 가능 문화시설의 양적 차이와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만 1세 미만 아동의 사례는 표본추출단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경험에 가장 차이를 주는 영향 요인이 ‘연령’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어린 영아를 위해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문화시설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경 요인 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는 영유아의 문화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이용이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선형, 2009: 34). 이는 곧 지역규모별 문화시설 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져 읍면지역 아동은 교육경험 뿐 아니라 문화경험에 있어서도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문화자본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결과 영유아기의 문화 경험은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문화경험 정도, 문화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상속자본’ 적 변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어머니의 문화경험이 낮거나 문화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영유아기의 문화 경험의 양과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영유아의 기관 이용 여부는 가정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영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영유아의 가정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정도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영유아의 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과(이윤진 외, 2013: 97)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할 수 있는 취업모인지 여부가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기관 이용이 높은 특징으로 인해 어머니 취업의 영향력이 상쇄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기관 이용률이 높는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이윤진 외, 2013) 기관 이용시 기관으로부터 얻는 영유아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가 가정에서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영유아기의 문화경험은 무엇보다 부모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기관이 부모로부터 세습되는 이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규명하였다.

이러한 주요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기부터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단기 효과에 집착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을 펴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융성할 수 없는 문화의 속성을 생각할 때, 영유아부터의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문화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융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어릴 때의 경험은 습관화되고 품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생애에 걸친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영유아의 문화경험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시설의 분포가 희소하여 문화소외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해당 지역 부모에 대한 교육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읍면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의 분포가 낮을 뿐 아니라 농사일 등 생업으로 바쁜 부모나 불편한 교통 여건 등으로 농어촌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불리함이 문화경험에도 불리한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부모의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농어촌 아동을 위한 문화경험 촉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적으로는 문화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가 이용할 만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나, 지역규모별 분석 결과 읍면지역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이윤진 외, 2013: 123).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더 희망한 것에 비해 읍면지역 부모들은 문화시설 확충을 더 희망한 것은 읍면지역은 무엇보다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유아용 문화시설을 확충하라는 제안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거점 지역의 국공립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이동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의 개발·확충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재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지역과 산간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¹⁰⁾과 같은 적극적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동식 서비스에서도 문화인프라의 구비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정도와 차이가 없도록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가구 영유아를 위한 ‘문화바우처’의 확대 지원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개념의 문화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소득이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소비에 있어서도 소득수준별 계층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경험의 차이가 영유아가 속한 가족 배경, 곧 가구소득에 좌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저소득 가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 관람료 지불 여부에 차이가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저소득

10) 어린이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kidsnfm.go.kr).

가구의 영유아에게는 무상 혹은 할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관람료를 받는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도 저소득 가구의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은 영유아 단독 이용은 불가능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다보면 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족단위 관람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이윤진 외, 2013: 148).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차등하여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을 유지할 경우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가구당 지원되는 문화바우처는 1년에 한 가구당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1년에 5만원은 가족단위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므로 가구원수에 비례하거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적 금액 수준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들은 부모의 의지가 없다면 문화를 독자적으로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이다. 문화바우처를 가구당으로 지원할 경우 부모 등 성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영유아는 문화소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영유아 자녀가 이용한 문화시설의 이용료는 포인트 적립식으로 누적하여 이듬해 문화바우처 카드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하거나(이윤진 외, 2013: 148), 동반하는 취학전 아동은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등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의 문화경험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기관의 문화경험 제공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기관 이용 시 영유아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가구 배경으로 인한 문화경험의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영유아 대상 기관이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3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문화경험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유아 대상 문화시설의 평일 관람객의 대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의 단체 관람 수요임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인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관람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거나(이윤진 외, 2013: 150), 단체관람이 내실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의 문화예술교육사의 파견보다는 이들을 영유아

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기관을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가 가정에 전달되어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관을 통한 영유아 문화시설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유아 부모 대상의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독자적인 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워 성인,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영유아의 건전한 문화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대상의 정보와 교육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시설 정보, 영유아기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나 인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문화경험이 부족한 부모와 취약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애(2012).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가능성 탐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9-29.
- 교육부(2013). 교육통계연보.
- 김경석(2008). 세대 간 문화자본의 전이에 관한 연구-청소년 세대의 문화적 취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선형(2009). 한국인의 문화행사 관람 유형과 사회적 지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태주(2002).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대한 고찰.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6, 307-314.
- 김호정·허진(2008). 한글 SPSSWIN 14.0 통계분석 및 해설. 서울: 삼영사
- 문화관광연구원(2012).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관계. KCTI 문화예술 관광 동향 분석. 제2011-06호.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계획-”
- 박상혜(2012). 박물관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31-49.

- 박신의·백령·황지영(2012). 201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Edu-Studio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 백원근·이용훈·김수연·박호상·윤치호(2012). 어린이(5~10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우석·양효석(2013).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 문화정책 논총, 27(1), 165-197
-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 윤소영·신아름·신효원(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동연(2010). 문화자본의 시대: 한국 문화자본의 형성 원리. 서울: 문화과학사
-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장미혜(2002). 예술적 취향의 차이와 문화자본. 문화와 계급-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pp.87-120.
- 정혜연(2012).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미술관: 재료 탐구 놀이를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69-85.
- Barnett, W. Steven.(1995).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on Cognitive and School Outcomes. *The Future of Children*, Vol. 5(3), pp, 25-50.
- Camilli, Gregory., Vargas, Sadako., Ryan, Sharon., Barnett, W. Steven.(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Early Education Interventions o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Teachers College Record*, Volume 112(3), pp.579-620.
- Campbell, F.A., Ramey, C.T.(1994).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on Intellectual and Academic Achievement: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 65(2), pp.684-698.
- Magnusun, Katherine A., Ruhm, Christopher, J., Waldfogel, Jane.(2004). Does Prekindergarten Improve School Preparation and Performance? NBER Working Paper No. 10452.
- Puma, M., Bell, S., Cook, R., Heid, C.(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Executive Summary.

[참고 사이트]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go.kr/nation.kri.org>).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www.kidsnfm.go.kr)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28일 / 게재 승인 12월 22일

·교신저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dian74@kicce.re.kr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Yun-Jin Lee and Jeong-W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and get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the use of cultural facilities. The 942 cases, which mothers were the correspondents, from the data collected for the case study in 2013 at Korea Institu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selected. Analysis of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First, large deviation was found with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Second, for the past year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was found between the scale of area and age. Also, family income, mother's education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that the child is involved heavily influence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Moreover, frequency of mother's use of cultural facility and the recognition of use, recognition of the effect that parents' use of cultural facility in their child showed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use of kindergarten and preschool also had an effect on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 early childhood. Third, as the regional scale was larger, child's age,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were higher,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used by mother was more, and as a mother thought that she had more experience in

the use of cultural facilities compared to her same generation, child's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creased for the past year. Also, as the child attends to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the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y use increased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atten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se of cultural facility in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and rural areas is to be supported much more. Also, ways to support children's use of cultural facilities through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re suggested.

Key words: cultural capitalism, continuity theory, early children, experience of cultural facilities use